

# 너의 '존재'를 응원해

: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 기획자 '자우'를 만나다



**자우 십시일반 기본소득 기획자**

인터뷰어

**한인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페이스북을 뒤적이다 자우님이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응원한다는 말은 나 역시 존재 자체로 응원 받는 느낌이었다. 뜻 깊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겼다. 가끔 함께 하는 이들이 보내주는 편지글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그가 궁금해졌다. 무작정 이야기를 걸었고, 그가 주최하는 돌봄 시간에도 참여하며 마음을 나눴다. 프로젝트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무르익은 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인터뷰하자고 연락을 남겼다. 흔쾌히 응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이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란다.

꽃샘추위가 살을 에던 3월의 월요일 오후, 광명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포근한 방석에 앉아 돌봄의 손길들이 묻어난 따뜻한 떡국을 대접받았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차를 몇 번이나 내려 먹었는지 모른다. 시계를 바라보니 어느덧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멈춰서서 고립과 연결의 경험을 성찰하는 이였다. 전환의 감각을 자신에게서 또 누군가의 시간 속으로 흘러보내는 이였다. 그를 보며 트리나 포올러스 Trina Paulus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떠올렸다. 모두가 쫓아가는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애벌레, 그 길에서 만나는 인연들. ‘덕택에’ 살아간다는 느낌이랄까. 멀게만 느껴지던 공유부가 내 삶에 훌쩍 다가온 느낌이 들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난 당신도 그럴 터이다.

## #.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우라는 이름이 궁금해요. 본명인가요?

- 본명은 아니에요. 지리산 기슭에 있는 실상사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자비로운 비라는 뜻이에요.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내리는 자비로운 비가 되라는 뜻이에요. 제가 살고 싶은 지향이 담겨 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광명YMCA 법씨학교라는 대안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고요. 가능한 만큼 멸종반란이라는 기후생태정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씨학교 교사는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걸까요? 아마 삶의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선택이 이어졌을 텐데요.

- 울산에서 평범한 인문계고를 다니며,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되

게 공허한 거예요. 첫 학기에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방의 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고립감이 확 느껴졌어요. 미지의 세계 같던 서울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세계로 바뀌었어요. 너무 우울했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고, 그 방식이 상당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껍데기 속에는 황폐한 내면이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걸 느꼈던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방향을 잃었고, 방향이 시작됐죠.

어떤 방향과 도피를 하셨나요?

- 당시에 국제 자원 활동이라고 있었어요. 한참 한비야 열풍이 불던 때였죠. (오, 저도 한비야가 꿈이었어요. 책까지 다 읽었어요) 맞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좋아보였어요. 마주한 현실에서도 망가고 싶은 마음과, 멋져 보이는 삶에 대한 동경이 합쳐져서 국제 자원 활동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에서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언어를 쓰는





데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고 교류하면서, 존재로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엔 인도를 갔죠. 그때 절대적 가난에 대해서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다음 해 여름에 프랑스로 떠났는데, 프랑스는 회색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전에 갔던 국가에 비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음. 환대의 느낌도 덜했고, 공원 나가는데 나이 든 남성분이 휘파람 불면서 “나랑 뽀뽀 할래” 이런 성희롱도 있었고, 여성이자, 동양 사람으로서 대상화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제 자원 활동이 가져다준 감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대학을 가셔도 관계를 맺은 이들은 많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고, 가면으로 만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한 채로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밖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의 어려움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껍데기를 넘어선 만남이 어떻게 가능할

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느꼈던 감각은 달랐어요. 나로서 만나는 느낌이라까. 그 감각이 저에게 소중한데, 그 경험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껍데기’를 내가 나일 수 없는 듯한 느낌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딱 그거예요. 대학교 2학년일 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대학생이면 경제 수업은 들어야지’ 싶어 경제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학기에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휴학을 해야 하는데 핑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휴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충격적인 거예요. 이까짓 성적 때문에 나를 파괴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게, 도대체 이 껍데기가 뭐길래 내 삶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싶어서. 그때 학교를 때려칠 거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언제까지 이 껍데기를 채우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

건가.’ 그런 고민이 드셨겠네요.

- 그렇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주변을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고,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끊임없는 임무가 있는 거죠. ‘나는 절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자퇴서를 들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가 고시 공부한다고 했으면 그만두고 했을 텐데. 네가 캄보디아에 해외봉사를 갈 거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과(인류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학사경고 받지 않을 정도만 마무리하고, 갔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 #. “삶이 네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 휴학하고 캄보디아에 갔어요. KOICA에서 NGO 사업장에 활동가들을 파견하고 활동비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우물을 파주기도 하는 한 NGO의 사업장에 파견되었어요. 그때 시골 생활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 집에서 소, 돼지, 오리, 닭, 개, 고양이가 다 같이 지내요. 사람들은 나무집 2층에서 모기장 하나 치고 살고,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지나가면서 밥 먹었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밥 안 먹었으면 손가락 하나만 얹어서 같이 밥 먹는 문화를 경험한 거죠.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환대하는 삶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민폐를 끼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쪽 진로 생각을 접었죠.

행복했어요? 그런 삶이?

- 네. 진짜 행복을 맛보았어요. 나를 파괴하지 않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명절이 되면 캄보디아 친구 오

토바이 뒤에 타고 사원에 가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반찬 한 개로 밥을 먹어도 따뜻하고 배부른 느낌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눔의 삶을 살더라고요. 거기서 마음의 여유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GDP로 환산되지 않는 삶의 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필리핀에서 도시 빈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생활한 적도 있는데. 엄청 열악한 가운데서도 같이 나눠 먹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는 정서가 있었어요. 서로를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좋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수 백 년 넘게 이어져 온 계단식 논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자들을 맞이해 주던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말씀해주셨어요. “이 땅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왔다”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 나의 뿌리가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의 자긍심은 어떤 뿌리에서 오는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뿌리가 없던 것 같아요. 고향이 울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제가 속한다는 감각은 없었는데,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졸업을 좀 늦게 하셨네요?

- 네. 졸업을 한 뒤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공부는 정말로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필리핀에서 시작하게 된 공정여행을 계속 해야겠다 싶어서 대전에 있는 공정여행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공정여행은 돈을 가진 이가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여행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관계에서 되게 폭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요. 당시 대표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미성숙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풀었고, 구성원들은 소진되어 나가 떨어졌어요. 저도 극단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우리는 공정여행을 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과 관계는 공정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깊어졌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치는 데 성공하셨나요?

- 네. 그때 붙잡은 동아줄이 지리산에 있는 인드라망 대학(이후 생명평화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었다)이었어요. 꺼져가는 불꽃같은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살 곳도 내어주시고, 먹을 것도 내어주시고. 그야말로 회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선물 받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드라망 세계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세계관이 얼마나 서로를 소외시키고,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돌아보게 됐죠. 그리곤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의사소통 방식부터, 농사를 짓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등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교육이 얼마나 사람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였는지 돌아보게 됐죠.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음 해 커뮤니티 밥집을 같이 만들게 되었어요.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소진이 되기도 하고, 저는 결국 밥집 운영을 그만두고 인드라망 활동가로 남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지리산이음이라는 단체와 함께 청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충전 프로젝트도 기획해서 진행해보기도 하고요.

인드라망 활동가는 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생계는 어떻게 이어나가셨어요?

- 생명평화대학 활동가로 소속되어 대학과 관련한 일, 실상사와 관련한 일, 그리고 실상사 작은 학교라는 중고등 대안학교 마을 교사로 일하기도 했어요. 당시 지내는 공간과 먹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아서 월 50만 원 정도를 받고도 생활이 가능했어요.

즐거움 일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 당연히 있었죠. 제가 함께 만든 커뮤니티 밥집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유자청을 사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당시 돌아보면 이미 몸이 소진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힘든 걸 잘 소통하지 못했죠. 사실 이것도 결국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에, 일을 만들고 막 달려가고, 그 과정에

서 나와 주변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소진이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애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애쓰면 자꾸 집착하게 되어서. 그래서 느슨하게 관계 맺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참여하고 애쓰면 그만큼 희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미가 없다보니 삶의 활력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드디어 법씨학교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 맞아요. 당시 실상사에 방문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삶의 활력에 대해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겨울에 제주도를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 중 한 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법씨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도착한 날 우연히 그 선생님을 따라 법씨학교에 가게 됐고, 그때 법씨학교 학생들에게서 솔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힘을 느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광명 본교에서 교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지리산에서의 5년 생활을 정리하고 광명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법씨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 생활교사로서 초등 4~5학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학생들과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당탕탕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양육자들과 자주 소통하고, 동료 교사들과 회의도 많이 해요. 대안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전부다'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교사가 자신답게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고, 교사들이 서로에게 엄청 코멘트를 해줘요. 방학 때마다 교사 연수를 가는데, 그때 속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잘 꺼내지질 않았어요. 선생님들의 질문은 계속 들어오고... 그때 엄청나게 울기도 했죠(^.^). 정말 우여곡절은 많았는데, 내 안의 껍데기들(예를 들면 눈치를 보고,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잘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들이요)이 깨어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과정을 함께 해





주는 동료 선생님들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 # 십시일반기본소득 프로젝트: 물질과 이야기가 흐르는 일

깍대기는 가라. 시 읽는 것 같아요. 알맹이를 찾기 위한 여정. 자취방에서 고립감을 느꼈던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십시일반기본소득 프로젝트는, 한 존재를 응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이를 선물해주는 프로젝트예요. 1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선물하고요. 보통은 한 사람이 5만원을 내시는데,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각 프로젝트당 십여 명 내외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은 3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곧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나요. (3월부터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맺음이 되었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아마 자우님의 삶의 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지리산에서 지냈을 때 사람들이 내어주는 것들에 의지해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을 전환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았죠. 삶의 불안정성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해결할 방법으로 작게나마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전환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실현하기에 삶의 형태가 너무 불안정한 분들의 예가 있다면요?

- 예를 들면 첫 번째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은 동료는 동물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동물권 활동이라는 것이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말하는 ‘일’들을 병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이가 하는 일, 동물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일들은 이 사회를 깨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덕에 깨어난 한 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그의 삶의 기반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생활을 제대로 해갈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이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지낼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또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전환의 삶은 그들에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의 씨앗을 뿌리고 길러내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 시공간을 찾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뭐라도 하자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것이고,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럼 이 프로젝트를 전환을 위한 무엇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환과 돌봄을 위한 지지망, 안전망, 씨앗 그런 것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상 돌보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존재를 돌보지만, 막상 나를 돌볼 힘은 사라지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들의 활동은 '활동'이라고 말해지지 않는데, 십시일반 기본소득은 그런 이들에게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나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요. 돌봄이 선순환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하시다가, '활동이라고 말해지지 않는 활동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게 된 동료는 이전에는 동물권 활동가였고. 지금은 동물권 활동을 하지 않지만, 내면 작업을 하면서 채워지는 에너지로 다른 활동가들을 돌보는 활동을 해요. 임금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이의 돌봄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는 종종 틀 밖에 있는 활동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고요. 하지만 홀로 가능한 활동은 없어요. 다른 돌봄들에 기대어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요. 요즘 '쓸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성찰하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 있으셨어요?

-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받는 분 중에서 기본소득 받는 것으로 본인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었



어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계속 고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챙기지 못하게 되면 소진되고, 결국엔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돈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상호부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공적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건 충족시켜야 하는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뭔가를 증빙해야 하기도 하고, 성과를 위해서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존재’를 지원하는 방식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공적 지원시스템은 돌보는 일들을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져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체에 몇 천만 원씩 프로젝트비가 입금돼도 인건비는 전혀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값싸가며 일을 해내야 하죠. 일이라는 것들이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왜 그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죠.

이 프로젝트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넣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2014년에 기본소득을 알게 됐거든요. 당시에 ‘내 통장에 매달 70만 원씩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내 삶과 지역사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를 묻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리산에 사는 친구들이랑 그걸 했거든요. 사실 그들은 이미 적은 돈으로도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던 이들이라, 바라는 게 크지 않았어요. 다만 기본소득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삶을 보다 안정감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상상했어요. 그걸 계기로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이 생겼고, 기본소득의 철학이 맘에 쏙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맘에 ‘썩(!)’ 드신 걸까요?

- 무조건성이요. 조건 없이, 증빙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개별성에 대한 인정도 좋았어요. 사실 많은 구성원이 가정에 종속

되는 위치에 있는데 기본소득은 각 개개인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지향을 이 프로젝트에도 반영하고 싶었어요. 저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너무 좋거든요. 저 역시 지리산에서 살 때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을 받은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지리산에 먼저 정착한 선배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1년 간 기본소득을 주는 ‘청년 활력 기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목격한 경험도 있었죠. ‘십시일반’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왔어요.

그 경험이 자우님께는 어떻게 와닿았어요?

- 사실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그전에는 되게 날카롭고,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에서 사람들이 지낼 곳도 마련해주고 먹는 것도 주고 기본 생활이 해결되니깐 큰 걱정 없이 잘 누렸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깐 삶의 여백이 생겼어요. 그런 원 경험을 하고 나니깐 ‘세상에 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존재 자체로 응원 받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던 것 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뒤에 무엇을 붙이면 좋을까 했을 때, 그 지향이 기본소득 철학에 가까워서 십시일반 기본소득이 되었어요.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셨던데요. 어떠셨어요?(참고로 자우가 진행한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 인터뷰 전문은 <http://blog.naver.com/jawoo05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원래는 기본소득을 받는 친구들의 소식을 아예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증명하는 것들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물의 이야기가 흐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 모습을 기꺼이 지지하는 마음 간의 연결고리랄까요. 그 흐름이 사실은 서로 돌봄이고, 선물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 받는 이와 선물하는 이의 마음들을 가능한 만큼 기록하게 됐죠.

어떤 마음들이 흐르고 있던가요?

-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 중에 고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군가의 활동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예술’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리에서 소리치고, 성명서를 읽고,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경제적 보상이 없다 보니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죠. 또 ‘주고받는 감각’에 대해 표현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는 우리는 ‘받는 것’을 꺼리죠. ‘빚’이 되어버린다는 감각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깔끔하게 더치페이하고.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처럼 부담감도 의무감도 없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한가요.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요. 그런데 십시일반기본소득은 ‘서로 신경 쓰면서’ 주고받는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기본소득이 그런 감각들을 일깨워서, 연결감을 만들고, 각자가 저마다의 색깔로 열렬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나요?

- 십시일반기본소득을 받는 분이 들려준 얘기인데, 사회운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생계는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계를 해결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세계에 내 자리가 있구나. 나를 환대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그런 감각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막연히 돈을 더러운 것으로 봤는데 환대의 감각을 통해 흐르는 돈은 어떤 신성함을 일깨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자우님은 이런 프로젝트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나요?

- 그런 마음이야 당연하죠. 사실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저는 기본소득의 가치가 최대한 알려지는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것들, 그것을 독점화하면서 이익이 생겨나는 것들

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저에게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공통의 권리가 있고, 그것이 태초에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해가는 거예요. 지구에게서 받은 선물은 나 혼자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잖아요. 나 이외의 존재들은 물론, 세대를 넘어선 인식도 중요하죠. 그런 철학이 기본소득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 좋겠어요.

기본소득을 소비 촉진제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 네, 기본소득이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을 일깨워줄 텐데 그것이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나의 권리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 역시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기본소득이 그런 감각으로 이해되는 것 같진 않아요. 기본소득이 단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본소득의 철학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요.

물론 자우님 이야기가 모두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철학까지 가닿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당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급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시행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까요?

- 제 지향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전환을 위해서 정성과 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살아내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런데도 진짜 조건을 두고 싶지 않아요. 농촌 기본소득으로 해야 하나, 생태 활동으로 해야 하나, 생태활동을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하나,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사실 맘 같아선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십시일반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가 서로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손을 잡아주고 싶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 상속에 관심을 가



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무형의 자산을 가진 이들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연결될 수 있을지가 고민되어요.

사회적 상속이 뭐예요?

- 저도 60+기후행동을 하시는 윤정숙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시고, 그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쳐 오며 유무형의 자산을 갖게 되신 어른들이 본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필요한 이들(주로 청년세대)에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사회적 상속’을 운동 차원에서 고민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십시일반기본소득을 시작했던 첫 마음을 떠올리며 사회적 상속을 디자인 하는데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생태적 전환, 기후정의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적성이 존재하는 화폐라면, 존재 자체로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와는 조금은 색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네요. 자우님은 앞으로도 십시일반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유지해 가시려는 건가요?

- 지금 3번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 이제 첫 번째 기본소득을 받는 친구가 올 3월에 1년 과정이 마무리되거든요. 계속 후원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사회적 상속을 운동 차원에서 고민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흐름을 보려고 해요.

슬슬 마무리 질문할 시간이 왔네요. 그럼 이런 생태적 전환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속한다면 이 사회는 또 자우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 지금은 나밖에 생각을 못 하는 고립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십시일반기본소득 혹은 사회적 상속과 같은 시도들이 지속된다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답게 살아가며 연결됨 또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고유성과, 세상의 통합성을 함께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함께 성숙해가고 싶어요. 자신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면서요.